

N세대 교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문지현 · 나현신*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A fundamental study to develop the school uniform for the Net generation

Mun Jihyun · Na Hyunshin*

Master Course,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market in the 21st century has drastically changed due to the advances of digital technology. This could be represented by the key words prosumer, do-it-yourself, mass customization, and so on. The net generation is in the center of change and nowadays teenage groups wearing school uniforms is a part of this generation. Therefore the current school uniform hardly fits their tastes and demands.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developing the school uniforms for the net generation based on the study of the characteristic of net generation and questionnaires targeted at high school students regarding the current school uniform.

Key Words : Net generation(N세대), school uniform(교복)

1. 서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지식혁명,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인간의 욕구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21C의

시장은 프로슈머(prosumer), DIY(do-it-yourself), 매스커스터마이제이션(mass customization)의 키워드로 요약된다.¹⁾ 이와 같은 시장 변화의 중심에는 N세대가 자리하고 있으며, 디지털 상품이 만연한 환

⁺ 본 연구는 2010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Corresponding author: Na Hyunshin, Tel.+82-2-970-5629, Fax.+82-2-970-5979
E-mail: hsna@swu.ac.kr

경 속에서 자라난 이들은 인터넷 세대로서 빠른 변화에 민감하고 새로운 자극과 신선함을 추구한다. 또한 소비에 있어서 합리적이며 선택의 자유를 중시하고 자신의 개성과 취향에 맞게 제품을 변형하여 자신을 표현한다.

현재 교복착용 대상인 중고생들이 바로 이 N세대에 포함되며,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에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률적인 형태로 제작되어 개성 표현에 극히 제한적인 교복은 N세대의 차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불만족은 지나친 교복의 변형으로 이어져 교복 본래의 형태와 의미마저 퇴색되는 문제점 또한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교복 관련 선행연구 대부분은 교복의 치수적합성 및 치수체계설정, 교복 디자인 선호도, 교복 만족도, 의복 행동 등에 국한되었으며, 이전 세대와는 구별된 특징을 나타내는 오늘날 N세대의 요구가 반영된 교복 개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N세대의 특징 및 교복의 특성을 파악하고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N세대인 남녀 고등학생의 요구가 반영된 교복의 디자인 개발 및 제작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통해 N세대의 일반적 특성을 도출하고, 교복에서 요구되는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교복착용실태, 동작적합성, 개발 교복의 요구사항 및 개선점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N세대의 새로운 세대 감각과 요구가 반영된 교복 디자인 개발 및 제작에 필요한 실재적이고 근본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N세대의 정의 및 특징

‘N세대(Net generation)’란 미래학자 돈 탭스콧(D. Tapscott)의 저서²⁾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그는 N세대를 디지털 기술, 특히 인터넷을 아무런 불편없이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인터넷이 구축한 가상

공간을 삶의 중요한 무대로 인식하는 세대라고 규정하였다³⁾. 이들은 디지털 상품이 만연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1982년에서 2003년 이전의 출생⁴⁾ 연령층을 포함하는 세대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N세대는 그들의 문화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가치인 선택의 자유를 추구한다. 자유롭고 상호교류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이들은 타인으로부터의 강요를 거부하며, 다양함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선택하고자 한다. 둘째, N세대는 소비자가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비환경 속에서 맞춤형, 개인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이들은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된 특성을 요구하고, 자신을 표현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상품과 서비스 등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변형하며, 자신만의 것으로 재창조하여 표현한다. 셋째, N세대는 인터넷과 다른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한 정보 획득과 공유를 통해 적극적인 제품 비교와 분석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소비패턴을 나타낸다. 넷째, N세대는 윤리적이며 사회적 책임을 보여줄 수 있는 성실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 이들은 기업이 약속한 것을 실천하고 사용자들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주기를 원하고 있다. 다섯째, N세대는 일, 교육, 사회에서 엔터테인먼트와 놀이를 원한다. 새로운 자극과 신선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놀이는 단순한 소모적 여가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것이 아니라 생산적 활동의 범위로 이해되고 있다. 이들은 기발하고 재미있는(fun) 제품에 흥미를 갖으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바탕으로 유행을 창조하기도 한다. 여섯째, N세대는 적극적인 참여자이다. 이들은 단순히 시장을 이루는 수동적인 소비층체가 아니라 생산자와 제품과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능동적인 프로슈머⁵⁾로서 기업의 협력자가 되고자 한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제품 견본을 테스트하고 설문조사에 참가함으로써 주문식 소비환경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일곱째, N세대는 기존상품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모든 것들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기를 요구한다. 이들에게 움직이지 않는 것은 곧 퇴보이며, 유행이 지난 상품을 쓰는 것은 곧 자기 비하를 의미한다. 핵심 소비자로서 N세대의 등장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단축과 신제품

품 출시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여덟째, 혁신적인 N세대들은 새로운 것과 앞서가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헝그리 어답터(hungry adopter)⁶⁾ 성향을 지니고 있다. 신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N세대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거부 반응이 높았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신기술 제품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컨버전스 제품에 대해서도 쉽게 적응하며, 곧 그 기술보다 앞선 것들을 요구한다.

이상과 같은 N세대의 특성은, 이들의 부모 세대와 구분되는 특징으로 N세대를 위한 교복 개발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될 것이다.

박현숙 (1993)	박영애 (1997)	임주희(2004)	김주연 (2008)	본연구
	상징성	상징성	상징성	상징성
	심미성	아름다움	아름다움	심미성
실용성				
기능성	기능성	기능성	기능성	기능성
경제성	경제성	경제성		경제성
소재				

<그림 1> 교복의 특성

2. 교복의 특성

교복은 학교에서 일정하게 제정해 학생들에게 착용하게 하는 학교 제복(school uniform)을 의미하며, 일반 제복이 가진 목적과 기능 외에도 교육적 효과를 가진다.⁷⁾ 라틴어 ‘unis(하나의)’와 ‘forma(형)’의 합성어인 ‘uniform’은 ‘unify(일치한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로써, 일정 기준에 의해 정해진 일정 양식의 복장을 가리킨다.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공식적인 의복으로 유니폼의 일환인 교복에서 요구되는 특성을 파악하고자 선행연구⁹⁾¹⁰⁾¹¹⁾¹²⁾를 고찰하였으며, 이상을 바탕으로 교복에서 요구되는 특성을 상징성, 심미성, 기능성, 경제성으로 요약하였다. 각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징성

‘상징성’이란 추상적인 사물이나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성질¹³⁾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언의 언어’인 의복에서의 상징성은 의복을 통해 연령, 직업 등 자기역할 및 지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함을 의미한다.¹⁴⁾ 교복은 착용자가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인식하며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만든 공식적인 의복으로, 학교는 교복을 통해 학교의 전통이나 역사를 표현하고, 학생 신분에 적합한 품위와 집단미를 구비하기¹⁵⁾ 위해 교복을 채택한다.

그러므로 교복에서는 학교의 아이덴티티를 함축하는 상징색이나 심벌(symbol) 마크를 통해 학교의 전통과 역사를 표현하며, 집단내의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학년마다 명찰, 넥타이, 리본 등의 색상을 구분하여 집단 내의 소집단을 구별할 수 있다.

2) 심미성

‘심미’란 아름다움을 살펴 찾는 것으로 심미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름답다는 느낌, 즉 미의식이다.¹⁶⁾ 크리크모어(Creekmore)는 의복에서의 심미성란, 의복을 통해 아름답거나 좋게 보이는 외모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¹⁷⁾ 이성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청소년기에 있어서 의복의 심미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헐록(Hurlock)은 “청소년기에는 비실용적이고 사치스러운 것이라도 외모에 매력을 더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였다.¹⁸⁾ 종래의 교복이 소속감이나 통제성, 교풍이나 학생의 아이덴티티 등을 나타냈던 반면, 개성화 시대인 오늘날의 교복에서는 디자인의 다양성과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심미적 요인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미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을 위한 교복에서는 획일화된 가운데에서도 개인의 미의식과 개성에 부합하는 디자인의 고려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스타일, 색상, 소재 뿐 아니라 디테일 및 전체적 프로포션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원리와 요소들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기능성

기능성이란 기능이 가지는 역할과 작용 효과의 정도를 말하여 기능이란 어떤 활동분야에서 그 구성부분이 하는 구실 또는 작용¹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복에서의 기능성은 의복을 통한 온도, 질감에 대한 신체적 반응 또는 의복의 맞음새에 대한 신체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²⁰⁾ 청소년기는 성장발육이 빠르고 신체활동이 활발한 시기로, 청소년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과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복에 기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장시간 교복을 착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인간공학적 패턴 설계와 적절한 소재의 접목을 통해 학업 및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될 수 있는 기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4) 경제성

‘경제성’이란 제물, 자원, 노력, 시간 따위가 적게 들면서도 이득이 되는 성질²¹⁾을 의미하는 것으로, 래피츠키(Lapitsky)에 의하면 의복에서의 경제성은 의복의 사용과 선택에서의 시간, 에너지, 돈을 절약하려는 것을 의미한다.²²⁾ 청소년기의 교복은 3년을 착용하는 의복으로, 선택 및 관리에 있어서 시간, 비용, 노력의 절감과 잦은 세탁과 반복적 활동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요구된다.

즉, 장기간 동일한 의복의 반복적 착용을 전제로 하는 청소년기의 교복에 있어서는 내구성 및 관리의 용이성 등이 검토된 소재의 사용, 성장에 따른 여유분과 조절 가능한 디테일 등의 접목으로 경제성의 고려가 요구되어 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복에 있어서는 학생의 신분과 소속된 학교를 표현하는 상징성, 청소년의 미의식에 부합하는 심미성, 신체적 능력을 향상을 위한 기능성, 비용 및 노력을 절감하는 경제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N세대 교복 디자인 개발 및 제작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복의 착용 실태, 동작적합성, 개발 교복의 요구사항 및 개선점 등을 조사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 구매, 교복 만족도, 교복 맞음새 및 착용 등, 현재 교복의 착용실태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 동작적합성을 통해 동작시 불편부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교복에 대한 요구사항 및 개선점을 알아본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시 인문계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09년 7월 6일~7월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46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기입이 미비한 19부를 제외한 총 441부의 설문지가 최종 통계 분석에 사용되었다. 지역과 성별, 학년의 편중을 막기 위해 서울시를 강동, 강남, 강북으로 나누고 각 지역 별로 성별, 학년을 균등하게 배포하였으나 회수에 있어 각 지역의 편차가 발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의 지역 및 성별과 한 달 용돈에 대한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인원수(명)	빈도(%)
지역	강서	126	28.6
	강남	165	37.4
	강북	150	34.0
성별	남	236	53.5
	여	205	46.5
학년	1학년	157	35.6
	2학년	154	34.9
	3학년	130	29.5
한달 용돈	10만원 미만	341	77.3
	10만원~15만원	64	14.5
	15만원~20만원	22	5.0
	20만원~25만원	7	1.6
	25만원 이상	7	1.6

3.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교복 착용실태, 교복 동작적합성, 교복에 대한 요구사항 및 개선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지는 선행연구²³⁾²⁴⁾²⁵⁾²⁶⁾를 참고로 문항을 추출하였으며, 교복 착용실태에 관한 문항 15문항, 교복 동작적합성에 관한 문항 2문항, 교복에 대한 요구사항 및 개선점 관한 문항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009년 6월 21일~7월 5일까지 개별 인터뷰 및 관찰조사를 이용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정·보완하여 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은 SPSS for Window (versio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교복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교복 구매와 맞음새 및 착용 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동작에 따른 불편부위에 대해 남녀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t-test를 실시하였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상표명은 A사(115명/26%), B사(106명/24%), C사(97명/22%)순으로 대기업 계열 유명 브랜드가 대부분이었으며 기타(88명/20%)의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에는 공동 구매를 통한 소규모 저가 브랜드의 구입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N세대의 다양한 정보획득 및 공유를 통한 적극적인 제품 비교 분석이 새로운 구매패턴인 공동구매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사료된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브랜드를 구매하는 이유는 기타(191명/43.3%), 디자인이 세련되어서(98명/23.2%),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75명/19.4%),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를 해서(37명/8.7%), 친구들이 착용했기 때문에(23명/5.3%)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내용으로는 학교 공동구매, 매장 접근의 용이성, 좋은 품질, 부모님의 권유 등이 있다.

교복 구매시 자신의 결정(182명/41.5%)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어머니(173명/38.6%), 친구(52명/13%)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복구매 시 '어머니와 상의하여'(62.1%), '스스로'(12.6%) 결정한다고 했던 이경민의 연구²⁷⁾와 상이한 결과로서, 타인으로부터 강요를 거부하는 N세대의 특성과도 연관되며 N세대의 의복 구매 시 본인의 의사 결정이 가장 중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IV. 결과

1. 교복 착용실태

1) 교복 구매

<표 2> 교복 상의 구매 시 고려하는 맞음새 부위의 순위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상의	남학생	품	63(26.7)	53(22.5)	33(14.0)	38(16.2)	30(12.7)	21(8.9)
		상의길이	53(22.5)	66(28.0)	55(23.3)	26(11.1)	25(10.6)	9(3.8)
		어깨맞음새	70(29.7)	49(21.0)	53(22.5)	33(14.0)	20(8.5)	11(4.7)
		소매길이	20(8.5)	42(17.8)	50(21.2)	78(33.2)	35(14.8)	13(5.5)
		소매통	9(3.8)	15(6.40)	26(11.0)	40(17.0)	90(38.1)	55(23.4)
	여학생	소재	21(8.9)	11(4.7)	19(8.1)	20(8.5)	36(15.3)	126(53.6)
		품	52(25.7)	41(20.3)	43(21.3)	32(15.8)	22(10.9)	11(5.5)
		상의길이	11(5.45)	30(14.9)	40(19.8)	59(29.2)	44(21.8)	20(9.9)
		어깨맞음새	81(40.1)	55(27.2)	31(15.4)	16(7.9)	9(4.5)	10(5.0)
		소매길이	33(16.3)	52(25.7)	48(23.8)	46(22.8)	12(5.9)	11(5.5)
	소매통	1(0.5)	6(3.0)	13(6.4)	25(12.4)	83(41.1)	73(36.1)	
	소재	24(11.9)	18(9.0)	27(13.4)	24(11.9)	32(15.8)	77(38.1)	

<표 3> 교복 하의 구매 시 고려하는 맞음새 부위의 순위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하의	남학생	허리둘레	94(39.8)	48(20.3)	31(13.1)	28(11.9)	27(11.4)	8(3.4)
		밑위길이	7(3.0)	44(18.6)	48(20.3)	63(26.7)	55(23.3)	19(8.1)
		영덩이둘레	21(8.9)	28(11.9)	71(30.1)	53(22.5)	32(13.6)	33(14.0)
		바지길이	44(18.6)	68(28.8)	30(12.7)	42(17.8)	34(14.4)	16(6.8)
		바지통	49(20.8)	43(18.2)	42(17.8)	27(11.4)	53(22.5)	22(9.3)
		소재	21(8.9)	5(2.1)	14(5.9)	23(9.7)	35(14.8)	138(59.0)
	여학생	허리둘레	91(45.0)	56(27.7)	24(11.9)	15(7.4)	16(7.9)	
		영덩이둘레	23(11.4)	58(28.7)	78(38.6)	35(17.3)	9(4.5)	
		치마길이	65(32.2)	59(29.2)	34(16.8)	28(13.9)	17(8.4)	
		치마통	6(3.0)	21(10.4)	33(16.3)	66(32.7)	74(36.6)	
	소재	16(8.0)	8(4.0)	33(16.3)	58(28.7)	86(42.6)		

교복의 상의 구매시 남학생들이 고려하는 맞음새 부위 중, 1순위는 어깨 맞음새(29.7%), 품(26.7%), 상의길이(22.5%)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상의길이(28.0%), 품(22.5%), 어깨 맞음새(21.0%) 3순위는 상의길이(23.3%), 어깨 맞음새(22.5%), 소매길이(21.2%)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1순위로 어깨 맞음새(40.1%), 품(25.7%), 소매길이(16.3%)순으로 고려하였으며, 2순위는 어깨 맞음새(27.2%), 소매길이(25.7%), 품(20.3%), 3순위는 소매길이(23.8%), 품(21.3%), 상의길이(19.8%)순으로 고려하였다<표 2>. 남녀 모두 교복 상의의 구매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어깨 맞음새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상의길이를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소매길이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들이 상의 구입시 어깨너비, 재킷길이, 소매길이 순으로 고려한다는 이경민²⁸⁾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여학생들이 블라우스 구입시 어깨너비, 가슴둘레 순으로 고려한다는 김혜정²⁹⁾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하의 구매시 남학생들이 가장 고려하는 부위는 1순위가 허리둘레(39.8%), 바지통(20.8%), 바지길이(18.6%)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바지길이(28.8%), 허리둘레(20.3%), 밑위길이(18.6%) 3순위는 영덩이둘레(30.1%) 밑위길이(20.3%), 바지통(18.2%)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1순위로 허리

둘레(45%), 치마길이(32.2%), 영덩이둘레(11.4%)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치마길이(29.2%), 영덩이둘레(28.7%), 허리둘레(27.7%) 3순위는 영덩이둘레(38.6%), 치마길이(16.8%)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교복 하의의 구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허리둘레와 하의 길이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학생들이 하의 구입시 중요시 하는 신체부위가 허리둘레, 바지길이라고 한 이경민³⁰⁾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여학생 스커트 구입시 치수선택 기준으로 중요시 하는 부위가 허리둘레, 스커트 길이라는 김혜정³¹⁾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바지통을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영덩이둘레를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복 디자인에 있어서, 남학생 상의의 어깨 맞음새와 길이, 여학생 상의의 어깨 맞음새 및 소매길이를 남학생 하의에서 허리둘레와 바지길이, 바지통을 여학생 하의에서 허리둘레와 치마 길이, 영덩이 둘레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2) 교복 만족도

교복 만족도에 관한 총 21항목을 요인분석한 결과 <표4>와 같이 구분되었다. <요인 1>은 소속감, 학교에 대한 자부심의 문항으로 '상징성', <요인 2>는 디자인, 색상, 체형의 결정에 관한 문항으로 '심미

<표 4> 교복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교복만족도 문항 및 요인명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h ²
요인1: 심미성						
·디자인이 청소년 감각에 맞는다.	.169	.209	.817	.104	-.069	.755
·색상이 마음에 든다.	.161	.149	.796	.143	.092	.711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대하여 만족한다.	.126	.279	.734	.083	.095	.649
·체형의 결점을 보완한다.	.198	.005	.664	.220	.123	.518
요인2: 상징성						
·교복을 착용하면 집단 규범 내에서 행동하게 된다.	.075	.087	.158	.782	.063	.653
·소속감이 생기게 해준다.	.185	.135	.047	.713	-.236	.619
·빈부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 심리적 안정감이 생긴다.	-.074	.223	.099	.711	.140	.590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해준다.	.271	-.066	.277	.640	.090	.547
요인3: 소재 기능성						
·반복 세탁 후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172	.765	.236	.095	.115	.693
·반복 세탁 후 사이즈가 달라지 않는다.	.154	.762	.297	.066	.010	.697
·세탁과 관리가 쉽다.	.282	.738	.002	.090	.112	.644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275	.674	.068	.085	-.008	.541
·소재에 따라 보풀이 잘 생기지 않는다.	-.024	.349	.223	.168	.216	.248
요인4: 동작 기능성						
·몸을 뒤로 젖힐 때 편하다.	.860	.245	.088	.096	.048	.818
·책상에 앉아서 학습할 때 편하다.	.836	.270	.057	.156	.031	.801
·몸을 앞으로 숙일 때 편하다.	.806	.164	.195	.066	.102	.729
·움직임이 편하다.	.777	.290	.081	.195	.049	.735
·버스 손잡이를 잡을 때 편하다.	.730	-.061	.156	.020	.082	.569
·사이즈가 잘 맞아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623	.225	.316	.025	.090	.547
요인5: 경제성						
·가격이 품질에 비해 싼 편이다.	.129	.145	.053	.007	.895	.830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다.	.138	.077	.118	.044	.889	.841
고유치	6.869	2.121	1.767	1.528	1.450	
설명변량(%)	32.71	10.10	8.42	7.28	6.91	
누적변량(%)	32.71	42.81	52.23	58.50	65.41	

성', <요인 3>은 교복의 세탁 후 형태 변형, 손질, 보풀과 관련된 문항으로 '관리의 기능성', <요인 4>는 움직임에 따른 불편함을 묻는 문항으로 '동작에 따른 기능성', <요인 5>는 가격 및 경제적 부담에 관한 문항으로 '경제성'으로 명명하였다.

상징성에 대한 하위요인 중 '소속감이 생기게 해

준다' 문항은 긍정적인 응답이 비교적 높게(156명/35.4%) 나타났으나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해준다' 문항은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190명/42.9%) 나타남으로써 교복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주는 면에는 효과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심미성에 대한 하위요인 중 '체형의 결점

을 보완한다' 문항은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204명/46.3%) 나타남으로써 교복이 학생들의 체형을 결정을 보완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관리의 기능성에 대한 하위요인 중 '반복 세탁 후 변하지 않는다', '반복 세탁 후 사이즈가 달라지지 않는다'의 문항은 긍정적인 응답이 비교적 높게(각 187명/42.4%, 208명/47.2%) 나타나 세탁 후 관리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소재에 따라 보풀이 잘 생기지 않는다' 문항은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141명/32.0%) 나타남으로써 교복 개발 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임을 나타낸다. 동작에 따른 기능성에 대한 하위요인에서 모든 문항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교복의 동작에 따른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버스 손잡이를 잡을 때 편하다' 문항은 부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게(236명/53.5%) 나타났으며, 이는 김정

혜³²⁾의 연구에서 '팔을 위로 올렸을 때의 진동의 착용감이 낮아 더 불편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경제성에 대한 하위요인에서도 모든 문항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교복의 경제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3) 교복 맞춤새 및 착용

현재 교복에 대한 사이즈의 만족도는 56.5%가 만족, 43.5%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여 만족도 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복 구매 및 착용시 본인 요구에 따라 교복 수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불만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착용 시 가장 불편한 아이템은 블라우스/셔츠(199명/45.1%)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남학생의 경우 재킷(83명/35.2%), 셔츠(62명/26.3%) 순

<표 5> 남녀 재킷 수선 부위 및 정도 비교

	남학생		여학생		t-value
	Mean	S.D	Mean	S.D	
재킷길이	2.7	0.74	2.9	0.80	-2.074*
어깨너비	2.85	0.68	2.96	0.62	-1.673
가슴둘레	2.85	0.71	3.25	0.79	-5.572*
허리둘레	2.77	0.74	3.00	0.69	-3.294
진동둘레	2.96	0.73	3.13	0.67	-2.536
소매길이	2.88	0.71	3.02	0.67	-2.236
소매통	2.86	0.71	3.03	0.61	-2.761

<표 6> 남녀 셔츠/블라우스 수선 부위 및 정도 비교

	남학생		여학생		t-value
	Mean	S.D	Mean	S.D	
셔츠길이	2.80	0.71	2.86	0.85	-0.773
목둘레	3.02	0.59	3.14	0.56	-2.171*
어깨너비	2.98	0.63	3.14	0.63	-2.708*
가슴둘레	2.94	0.63	3.31	0.77	-5.599*
허리둘레	2.92	0.65	2.98	0.73	-0.853
진동둘레	2.97	0.60	3.20	0.56	-4.250*
소매길이	2.95	0.67	3.00	0.64	-0.747
소매통	2.86	0.61	3.00	0.56	-2.599*

<표 7> 남녀 바지, 치마 수선 부위 및 정도

	남학생		여학생		t-value
	Mean	S.D	Mean	S.D	
바지/치마 길이	2.78	0.74	2.68	0.83	1.173
허리둘레	2.80	0.64	3.02	0.76	-3.210
엉덩이둘레	2.99	0.69	3.13	0.61	-2.309
밑위길이	2.89	0.71	-	-	-
바지통	2.67	0.89	-	-	-
밑단둘레	-	-	2.85	0.58	-

· *p<0.05

으로 여학생의 경우 블라우스(137명/66.8%), 재킷(35명/17.1%)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상의에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주로 앉아서 학습하기 때문에 하체보다는 상체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남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시 가장 불편한 부위는 어깨(73명/31.9%), 소매(49명/21.8%) 순이었으며, 여학생은 가슴(68명/33.2%), 상의길이(42명/20.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학생의 결과는 어깨, 소매 순으로 나타난 조은정³³⁾, 김주연³⁴⁾의 결과와 상이한 것으로 시대적 이상미에 따라 교복이 변화되고, 따라서 착용시 불편을 느끼는 부위 또한 변화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교복의 하루 평균 착용시간은 12시간 이상으로 나타났다으며, 과반수 이상(256명/58%)이 학교 외의 장소에서도 대체로 교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은정³⁵⁾의 '비착용(57.5%)', '반반착용(28.5%)', '착용(14%)'의 연구결과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부담이 느껴지고(44명/29%), 활동이 불편하며(260명/59%),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51명/11.6%)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착용함을 전제로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교복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교복 착용시 휴대하는 것으로는 핸드폰(180명/41%), 교통 카드(110명/25%), MP3(88명/2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복 개발시 고려해야 할 사

항으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며 얼리어답터의 성향을 가진 N세대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교복을 수선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64.9%로 과반수 이상이 교복을 변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선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여학생은 52.5% 남학생은 47.5%였다.

남녀 재킷 수선부위 및 정도<표 5,6,7>는 성별에 따라 재킷의 길이, 가슴둘레, 셔츠와 블라우스의 목둘레, 어깨너비, 가슴둘레, 진동둘레, 소매통에 서유리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선시 길이나 둘레에 있어서 더 많이 줄이는 결과로 몸매를 강조하는 패션 경향에 맞춰 여학생 교복은 슬림하게 변화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남학생 교복은 그 변화가 적고 기존 실루엣을 유지하는 형태가 많아 이와 같은 현상이 보여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몸을 줄이는 경향을 보임이 황선애³⁶⁾와 황진숙 외³⁷⁾의 결과와도 일치하며 교복 전체의 실루엣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인체 선이 부각되는 실루엣을 선호한다는 것은 박영애³⁸⁾의 연구결과, 교복 형태 선호도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짧고 허리가 들어간 실루엣을 선호한다는 것은 백승희³⁹⁾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수선은 자신을 표현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상품과 서비스에 등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변형하고 자신만의 것으로 재창조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N세대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다. 교복 수선 장소는 주로 전문 수선점(134명/47%)에서 이루어지며 세탁소(88명/31%), 교복 전문 대리점(55명/19%)의 순으로 나타

났다. 수선을 하는 이유는 치수가 맞지 않거나(201명/46%) 유행에 맞게 입기 위해서(124명/28%)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업체마다 치수는 세분화되어 있지만 대리점주의 소견에 따라 지역의 비균등한 사이즈 선택 및 배포가 수선의 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2. 교복 동작적합성

교복 동작적합성은 몸의 움직임에 따라 크게 4가지 동작 그룹-몸통의 움직임이 없이 팔만을 움직이는 동작<그룹 I>, 상체를 숙이는 동작<그룹 II>, 하체를 움직이는 동작<그룹 III>, 상체와 하체를 함께 움직이는 동작<그룹 IV>으로 나누었으며<표 8>, 평가방법은 부위에 따른 불편정도를 매우 그렇다(1점), 그렇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의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룹 1> 동작의 경우, 팔을 앞·옆·위로 올리거나 굽히는 경우 등·어깨·겨드랑이·소매가 당기고 상의 길이가 짧아졌다. 이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불편을 많이 느꼈으며,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룹 II> 동작의 경우, 의자에 앉아 엎드리거나 상체를 굽힐 때 남녀 모두 등이 당기고 상의길이가 짧아졌다. 역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불편을 많이 느꼈으며,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룹 III> 동작의 경우,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고 앉을 경우, 앉았다 일어날 경우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 등 하의가 많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편정도는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쪼그려 앉는 경우 ‘엉덩이 부위가 당긴다’는 문항을 제외하고는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룹 IV>는 엎드려서 팔을 펼 경우로 동작으로, 등·어깨·겨드랑이·소매가 당기고 상의 길이가 짧아졌다. 이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불편을 많이 느꼈으며,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 밖에도 계단을 오를 때, 필기를 할 때, 목을 움직일 때, 다리를 올릴 때 등 불편함을 일으키는 동작이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빈번하게 취하는 동작에 있어서 여학생들은 상의, 바지를 착용하는

남학생들은 하의에 따른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N세대의 특징 및 교복에 요구되는 특성을 파악하고 현재 N세대가 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착용실태 및 동작적합성을 조사함으로써, N세대의 요구가 반영된 교복의 개발 및 제작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문헌 및 선행 연구를 통해 N세대의 개념 및 특징, 교복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교복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441명의 N세대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 착용실태 및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동작적합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N세대란 네트워크 세대 혹은 IT세대(information technology)라 불리는 디지털 문화에 친숙한 세대로, 이들은 디지털 매체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대화, 오락, 학습 및 작업을 하며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 수집 할 뿐 아니라 놀이와 쇼핑 등의 모든 활동을 디지털 매체에 의해 함으로써 인쇄기술이나 TV등으로 나타난 세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가지고 인터넷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첫째, N세대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 착용 실태 가운데, 교복 구매에 있어서의 공동구매 증가는 다양한 정보의 비교 및 분석을 바탕으로 소비를 하는 N세대의 합리적 소비패턴을 나타내는 것이며 ‘교복 선택시 자신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결과 또한 타인의 강요를 거부하고 본인의 선택의 자유를 추구하는 N세대의 특징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교복 구매시 상의는 남녀 모두 어깨 맞음새를 중시하였으며 남학생은 상의 길이를 여학생은 품과 소매길이를 상대적으로 좀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의는 허리둘레와 하의길이를 가장 중시하였고, 남학생은 바지통을 여학생은 엉덩이 둘레를 좀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복 디자인 시 남학생 상의는 어깨 맞음새와 상의 길이, 여학생 상의는 어깨 맞음새 및 소매 길이가 고려되어야 하며 남학생 하의는 허리둘레와 바지길이, 바지

<표 8> 동작에 따른 불편 부위

그룹	동작		남학생		여학생		t-value	
			Mean	S.D	Mean	S.D		
I	팔 앞으로 90° 올리기		등이 당긴다	3.16	0.90	2.75	1.08	4.330***
			어깨가 당긴다	3.10	0.92	2.50	1.05	6.312***
			겨드랑이가 당긴다	3.11	0.92	2.52	1.01	6.412***
			소매가 꼭 낀다	3.15	0.90	2.64	1.06	5.438***
			상의 길이가 짧아진다	2.85	0.99	2.22	0.99	6.648***
	팔 앞으로 90° 올리기		등이 당긴다	2.95	0.99	2.36	0.92	6.502***
			어깨가 당긴다	2.81	0.94	2.33	0.88	5.592***
			겨드랑이가 당긴다	3.02	0.97	2.33	0.95	7.544***
			소매가 꼭 낀다	3.12	0.92	2.43	0.96	7.595***
	팔 위로 180° 올리기		등이 당긴다	2.93	1.04	2.39	1.06	5.422***
			어깨가 당긴다	2.79	1.02	2.12	0.87	7.531***
			겨드랑이가 당긴다	2.89	1.01	2.16	0.89	7.956***
			소매가 꼭 낀다	3.02	0.99	2.23	0.97	8.400***
	팔 90° 굽히기		상의 길이가 짧아진다	2.64	1.03	1.83	0.77	9.340***
			등이 당긴다	3.06	1.01	2.58	1.01	4.996***
			어깨가 당긴다	2.99	0.97	2.40	1.00	6.297***
겨드랑이가 당긴다			3.07	1.01	2.43	0.97	6.750***	
소매가 꼭 낀다		소매가 꼭 낀다	3.15	0.92	2.41	1.00	8.042***	
		상의 길이가 짧아진다	3.09	1.13	2.49	1.35	5.025***	
		등이 당긴다	3.16	0.99	2.39	0.96	8.189***	
		상의 길이가 짧아진다	2.81	1.07	2.00	0.89	8.710***	
II	의자에 앉아 옆드리기		등의 길이가 짧아진다	2.68	1.09	2.00	1.70	5.073***
			등이 당긴다	3.01	1.03	2.18	0.88	9.075***
III	쫄려 앉기		등이 당긴다	3.01	1.03	2.18	0.88	9.075***
			상의 길이가 짧아진다	2.68	1.09	2.00	1.70	5.073***
			어깨가 당긴다	3.14	0.95	2.57	0.96	6.277***
			허리가 꼭 낀다	3.04	0.96	2.73	1.01	3.281**
			엉덩이 부위가 당긴다	2.87	1.02	2.99	1.02	-1.197**
	무릎 꿇고 앉기		허벅지가 꼭 낀다	2.79	1.01	3.22	1.03	-4.440***
			무릎이 꼭 낀다	2.84	0.98	3.32	0.97	-5.017***
			엉덩이 부위가 당긴다	2.75	0.97	3.01	1.09	-2.687**
	앉았다 일어 나기		허벅지가 꼭 낀다	2.65	0.94	3.09	1.14	-4.331***
			무릎이 꼭 낀다	2.69	0.98	3.22	1.11	-5.373***
			엉덩이 부위가 당긴다	2.78	0.95	3.04	1.11	-2.660**
			허벅지가 꼭 낀다	2.68	0.96	3.17	1.09	-5.020***
IV	옆드 리기		무릎이 꼭 낀다	2.76	0.95	3.26	1.11	-5.059***
			등이 당긴다	2.92	0.97	2.16	0.93	8.353***
			어깨가 당긴다	2.78	1.01	2.08	0.88	7.791***
			겨드랑이가 당긴다	2.91	0.94	2.07	0.92	9.420***
			소매가 꼭 낀다	2.98	0.94	2.23	0.97	8.246***
상의 길이가 짧아진다	2.63	1.04	1.95	0.92	7.245***			

· *p<0.1, **p<0.05, ***p<0.001

통을 여학생 하의는 허리둘레와 치마 길이, 엉덩이 길이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둘째, 교복 만족도 요인은 심미성, 상징성, 관리의 기능성, 동작에 따른 기능성, 경제성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동작에 따른 기능성과 경제성에서 있어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즉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N세대에게 있어 현행 교복은 착용 및 움직임이 편리하지 않으며 품질에 따른 가격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동작에 따른 기능성과 경제성의 개선을 필요로함을 의미한다.

셋째, 교복 착용실태 결과 교복 맞춤새 및 착용에서 가장 불편한 아이템은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재킷, 여학생은 블라우스/셔츠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주로 앉아서 학습하기 때문에 상의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높아 나타나는 결과로 추측된다. 또한 교복 착용시 가장 불편한 부위는 남학생의 경우 어깨, 소매 순으로, 여학생은 가슴, 상의 길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학생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상이한 것으로 슬림한 바디이미지가 시대적 이상미로 추구되는 가운데, 교복 또한 타이트한 맞춤새가 선호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교복 수선은 남학생의 경우 바지 길이를 제외하고 수선시 교복을 줄이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학생의 경우도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자신만의 차별화된 특성을 요구하고 그에 맞게 변형하는 N세대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몸매를 강조하는 패션 경향에 맞춰 교복 또한 유사하게 변형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교복 디자인 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교복의 동작적합성에 있어서, 여학생은 상의, 남학생이 하의에 대해 더욱 불편함을 나타냈다. 이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적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여학생의 경우 상의의 불편함을, 활동성이 많고 바지를 착용하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하체 동작에 있어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N세대를 서울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 해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N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복 개발을 후속 연구로 제한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1) “N세대, 시장의 새로운 지표”, (2000. 08. 20), *금강기획*, 자료검색일 2009. 09. 02, 자료출처 <http://dragon.yonsei.ac.kr>
- 2) 돈 탭스콧(2009), *디지털 네이티브: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가 움직이는 새로운 세상*, 이진원(역), 비즈니스북스, pp.150-197.
- 3) 이미정(2001), “N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휴대폰 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 4) Ibid., p.6.
- 5) 앨빈 토플러(1984), *제3의 물결*, 원창엽(역), 흥신문화사, pp.292-316.
- 6) “형그리어답터, 웹시족..소비자 5대 키워드”, (2008. 01. 05), *헤럴드 경제*, 자료검색일 2009. 09. 24, 자료출처 <http://www.auction.co.kr>
- 7) 박현숙(1993),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착용실태 및 선호하는 교복디자인 연구: 서울시내 여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 8) 남운자, 김경인, 이윤정(1997), “유니폼 실태조사와 디자인 개성을 위한 연구(1)”, *한국의류학회지*, 21(2), p.456.
- 9) 박현숙, op. cit., pp.8-11.
- 10) 박영애(1997), “교복디자인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여학생복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7-19.
- 11) 임주희(2004), “여중고등학생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하는 교복 디자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9.
- 12) 김주연(2008), “여중생의 교복 디자인 선호도와 체형 유형에 따른 패턴 설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35-40.
- 13)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p.3298.
- 14) 마릴린 훈, 루이스 구헬(1988), *의복: 제2의 피부 (제3판)*, 이화연(역), 까치, p.150.
- 15) 유희경(2007), “우리나라 여고생 교복의 변천에 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17.
- 16) 표준국어대사전, op. cit., p.3881.
 - 17) 강혜원(1984), *의상심리학*, 교문사, pp. 287-288.
 - 18) 조은정(2003), “jeans소재를 이용한 여고생 교복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 19) 표준국어대사전, op. cit., p.871.
 - 20) 강혜원, op. cit., pp.287-288.
 - 21)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p.368.
 - 22) 강혜원, op. cit., pp.286-287.
 - 23) 이경민(2003), “남학생중학생의 교복 치수규격 설정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03-113.
 - 24) 김정해(2005), “여고생 동복 재킷의 형태 및 소재의 신축성에 따른 만족도와 착용감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8-70.
 - 25) 김주연, op. cit., pp.135-140.
 - 26) 하선주(2007), “철도근로자 작업복 기능성 향상을 위한 연구: 전기기술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37-145.
 - 27) 이경민, op. cit., p.28.
 - 28) Ibid., p.29.
 - 29) 김혜정(2001), “제주지역 여고생의 교복변형과 치수만족도 및 교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3.
 - 30) 이경민, op. cit., p.29.
 - 31) 김혜정, op. cit., p.44.
 - 32) 김정혜, op. cit., p.29.
 - 33) 조은정, op. cit., p.78.
 - 34) 김주연, op. cit., p.39.
 - 35) 조은정, op. cit., p.74.
 - 36) 황선애(2007), “남녀중학생의 의복관심도와 교복만족도 및 교복변형실태”,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7.
 - 37) 황진숙 외(2002), “남녀고등학생의 교복 이미지 선호와 교복 변형행동의 비교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3), p.246.
 - 38) 박영애, op. cit., p.70.
 - 39) 백승희(2000), “CAD를 이용한 교복 디자인 개발 경로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1-32.

접수일(2010년 5월 3일)

수정일(1차 : 2010년 6월 29일, 2차 : 7월 16일)

게재확정일(2010년 7월 19일)